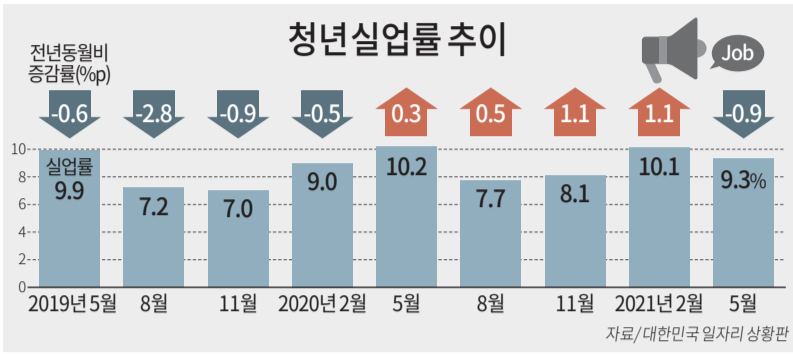




[해설]
여론 등 돌리자
쿠팡, 물류센터 지원 등
대응책 마련
03

24일 Market Index			
↑ 코스피	3286.10 (+9.91)	↓ 코스닥	1012.62 (-3.84)
↑ 금리 (연고액 3%)	1.384 (+0.046)	↓ 환율 (원/달러)	1134.90 (-2.80)

m-커버스토리



고용절벽 내몰린 청년 불안감에 창업의 길로

일자리의 변화

일자리가 바뀌고 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어야 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청년들의 실업률은 일반 실업률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자영업이나 스타트업 등 창업으로 뛰어드는 이들도 부지기수다.

일자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비정규직 유형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들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청년실업률, 일반실업률 2배
코로나 여파 신규채용 감소
취업보다 스타트업·창업 ↑

정규·비정규직 양극화 심화
대·중소 간 임금 격차도 확대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민연금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노년층도 노후가 불안해지며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 하나의 일자리를 놓고 청년, 노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쟁하는 모양새다.

문제는 2년째 지구촌을 흔들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이같은 일자리의 변화에 더욱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당

시 8.1%였던 15~29세 청년실업률은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해엔 9%까지 높아졌다.

반면 15세 이상 일반 실업률은 2000년 4.4%에서 한때 3%대까지 내려갔다가 지난해엔 4%를 기록하며 10년전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10대 후반, 20대 청년들의 실업률이 일반 실업률에 비해 두배가 훌쩍 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코로나19는 경력에 비해 신입이 들어갈 문을 더욱 좁히고 있다. 기업들이 가뜰이나 신규 채용을 줄이고, 그때 그때 필요한 인력을 경력자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취업보다 창업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스타트업에 도전하거나 청년가게 등을 여는 젊은이들도 적지 않다.

서울 종로구에서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초반 오모씨는 “군대에 다녀와 23세때부터 가게를 차렸다. 준비기간 없이 개업하다보니 처음 2년은 고생이 많았다. 투잡을 하며 월세를 내면서 버텼다. 독학으로 바리스타1급 자격증도 땀다. 그후 본게도에 올라 하루에 400~500잔을 팔기도 했다. 아무리 구멍가게라도 철저히 준비하고 창업해야 한다. 안그러면 100% 망한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 창업 생태계의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을 제외한 개인기업의 경우 109만개(2016년)→116만개(2017년)→124만개(2018년)→118만개(2019년)→136만개(2020년)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다.

이같은 창업 불현상은 정부의 예산 지원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4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이베이 품은 신세계, 온라인·디지털 ‘새판’

신세계, 3.4조에 이베이 인수 확정
“미래 유통, 온라인 강자만 생존”

신세계그룹의 사업구조가 ‘온라인과 디지털’로 180도 전환한다.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이베이 미국 본사와 이베이크리아(이하 이베이) 인수를 위한 ‘지분 양수도 계약(SPA)’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인수 가액은 약 3조4000억원이다.

신세계 측은 “미래 유통은 온라인 강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며 “이번 인수는 단순히 기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기회를 사는 딜”이라고 설

명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은 “얼마가 아니라 얼마짜리로 만들 수 있느냐가 의사결정의 기준”이라며, 이베이 인수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올 초 신년사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근성’을 주문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베이는 외형 면에서도 인수 완료 즉시 그룹 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세계의 사업 포트폴리오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이뤄져 신세계그룹이 온-오프 통합 확고한 국내 1위 유통 사업자가 될 전망이다.

이베이를 인수하게 되면 이마트 부

문 내 온라인 비중이 약 50%에 달해, 미래사업의 중심축이 온라인과 디지털로 대전환 하게 된다. 이를 시작으로 신세계는 다가올 미래를 위한 ‘디지털 에코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등 기존 오프라인 유통뿐만 아니라 최근 인수한 SSG랜더스야구단 및 이베이와 SSG닷컴 등 온라인 종합 플랫폼까지 갖추게 되면, 어디서나 모든 고객과 만날 수 있는 완전한 온-오프 ‘360 에코시스템’을 완성하게 된다.

(2면에 계속)

/신원성 기자 tree6834@



메트로신문 ‘2021 퓨처푸드테크 코리아’ 개최

조단 테트릭(Jordan Tetric) ‘잇저스트’ 글로벌마케팅 대표가 24일 서울 중구 페럼홀에서 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1 퓨처푸드테크 코리아’에서 영상으로 강연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車 이어 조선업계도 노사 임단협 진통

현대·지엠·르노삼성 입장차 여전
현대중, 파업 결정에 불안감 확산

국내 산업계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로 초대형 악재가 사라지며 각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산업계가 살아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노조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 조선업계가 노조 등살에 몸살을 앓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의 포문을 열었지만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하기 휴가전 임단협 타결을 목표로 지난해보다 2달이나 빠른 지난달 26

일 노사간 임단협 교섭 상견례를 갖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주요 안건으로 임금인상과 전년 동기순이익 30% 성과급 지급을 비롯해 현 60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인 65세까지 늘려달라는 정년연장안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임금교섭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임금동결과 무분규 교섭이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노조는 내달까지 회사 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노사 갈등이 최근 현대차가 미국에 8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심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시 노조측은 “해외공장 투자로 인

한 조합원 불신이 큰 마당에 노조와 상의도 없이 천문학적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5만 조합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노조의 요구와 관련해 조합원 사이에서는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노조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서는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어 노노 갈등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국지엠도 지난달 말 노사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교섭에 본격 나섰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3년간 임금동결한 만큼 올해 임금인상과 성과급 지급, 정년연장 등의 노조 제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정부 “델타 변이 유입 방지 위해 방역강화국가 지정 검토”
▲ “박성민 발탁”이 정의나’ 문자 노동장관 “뉘라 말씀드릴 수 없어” (사진 뉴스)

▲ 원희룡 “국힘, 윤석열 무너지면 줄줄이 무너질 위기감 가져야”
▲ 이준석 “공수처, 국민에 불편함 없어야”... 김오수 “중립 지킬 것”



▲ ‘복당’ 홍준표 “만아들 돌아왔다... 도덕성·경륜 대선후보로 정권교체” (사진 뉴스)
▲ 정세균, 경선 9월말~10월초 절충안에 “연연하지 않아... 절차가 중요”